

# 순천 '세계유산축전'...선암사·갯벌 가치 알린다



선암사

순천시가 8월 한 달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선암사와 순천갯벌을 무대로 '2023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을 개최한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남 최초로 개최되는 순천 세계유산축전은 '일류 순천, 세계유산을 담(滿)다'를 주제로 정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선암사와 자

연유산 순천갯벌이 가진 각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길로 연결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

선포식은 8월4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울림'을 주제로 한 주제공연은 선암사에서 순천갯벌로 이어지는 연결의 길을 통해 사람과 자연, 현재와 미래세대, 더 나아가 순천과 세계가 함께하는 세

8월 한달간... '일류 순천, 세계유산을 담다' 주제 공연·체험·전시 등 다채... '괘불 봉안의식 시연'도

계유산의 가치를 알릴 예정이다.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축전은 기존 축제의 틀에서 벗어나 세계유산 속에 특별한 공간과 시간, 비움과 섬을 담고 유산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공연·체험·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먼저 세계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 향유를 위한 전시·공연 프로그램 및 전통의식 재현행사, 산사음식문화 체험 등 8월의 순천을 알릴 예정이다.

섬을 찾아가는 선암사의 '천년불심길'과 16km의 순천만 갈대길을 유산해설사·생태해설사와 함께 걷는 '갈대길 섬 with 비움'을 통해 길을 걸으며 세계유산의 가치를 찾고, 보존하는 메시지를

를 담아갈 계획이다.

또한 선암사의 괘불 봉안 의식 시연은 세계유산축전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특별한 무형 문화 체험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세계유산이 가진 가치를 찾아 미래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확산 프로그램들도 다수 준비돼 있다. 세계유산 스탬프투어, 순천 세계유산 축전 스테이 등 세계유산을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미래세대에게 유산의 가치 전달을 위한 '해움 세계유산학교'도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관내 초등학교 약 30명을 선정해 선암



순천갯벌

(순천시 제공)

사와 순천갯벌 일원 곳곳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통해 우리 유산을 헤아리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축전은 선암사가 가진 소박하지만 수려한 불교문화와 순천갯벌의 자연 생태계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까지, 문화와 자연, 유산과 사람의 공존을 담아낼 예정이다.

노관규 시장은 "순천시는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동시에 보유한 도시로 세계유산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축전을 통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지켜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미래세대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정기기자

## “‘광양만권 수소특화단지’ 지정 협력을”

정인화 광양시장, 남중권발전협 정기총회서 지역 소멸 대응 '시민문화벨트 구축' 제안

광양시가 광양만권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대해 남중권발전협의회 차원의 공동 협력을 요청했다.

광양시는 22일 "전날 정인화 시장이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열린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제22차 정기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에서 시는 남해안남중권의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남해안남중권 민간단체 간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해안남중권 시민문화벨트 구축'을 제안해 광역형 문화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광양만권 탈탄소·수소화 개편을 위한 광양만권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대해 남중권발전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본격적인 우주항공시대 대비해 나로우주센터 접근성 개선

위한 광주-고속 간 고속도로 건설과 사전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조기 제정을 공동건의문으로 채택해 남해안남중권의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이끌어냈다.

정인화 시장은 "남해안남중권 시군

면면이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거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곳"이라며 "협의회가 남해안남중권 시군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과 경남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등 9개 시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남해안 발전 거점 형성과 영호남

상호 교류를 위해 2011년 5월 창립했다.

협의회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하동세계차엑스포 참여와 홍보에 적극 노력해 왔으며 광양매화축제 등 시군 대표 축제에서 특산물 판매장, 홍보관 운영과 남해안남중권 누비고 투어 운영 등 회원 도시 간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광양=양홍렬기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제22차 정기회가 지난 21일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열렸다.

(광양시 제공)

## 곡성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총력'

내년 계속사업 5건·신규 2건 등 투자계획 수립

곡성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곡성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동마루에서 '지방소멸대응 추진체계 제4차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에는 군수, 부군수, 군의회 의장, 관련 부서장 및 미래교육재단, 전남과학대학교, 청년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착수한 '곡성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 영역의 최종 보고와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곡성군은 3월부터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민·관·산·학 추진체계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2022년과 2023년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B등급 168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 투자계획과의 연속성을 위해 2024년에는 계속사업 5건과 더불어 신규사업 2건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이상철 군수는 "군이 가진 취약점을 강점으로 탈바꿈시키는 역발상을 통해 지방소멸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했다"며 "군민 행복을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 확보를 위한 사업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곡성=이호산 기자

## 장흥 장동면 '벽화 따라 걷는 특색있는 마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주민 참여 벽화 조성

장흥군 장동면은 "최근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벽화 그리기 조성사업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으뜸마을 만들기는 주민 간 소통과 협동을 통해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남도 시책 사업이다.

장동면 장항마을과 학산마을에서는 빛바랜 빈 벽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벽화 조성이 나갔다.

학산마을에서는 학과 제암산을, 장항마을에서는 노루목이라는 각 마을의

역사와 특징이 스며든 벽화를 조성해 눈길을 끌었다.

사업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이번 마을 벽화 꾸미기로 마을 특색을 더 부각하고 마을에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활력 넘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문수연 장동면장은 "앞으로도 9개 마을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노형록기자



장흥군 장동면 장항마을(위)과 학산마을에서는 최근 빛바랜 빈 벽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벽화 그리기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장흥군 제공)

## 송하진 여수시의원, 의회 미동의 협약 '제동'

합의·양해각서 등 체결 시 의회 동의 의무화 조례안 발의

여수시가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민간인 등과 맺어 오던 각종 협약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22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제2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송하진(사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 등에 관한 의결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이 공포돼 시행되면 여수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각종 협약 체결 시 의회에 사전 보고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수시의 일방적 협약 체결로 발생하던 의회와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조례안은 사후관리 조항도 신설해 협약 체결 이후 추진 사항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여수시의 각종 협약에 대한 책임 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한편 여수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6월 현재까지 민간과 29건의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3년간 여수시는 총 60건의 협약을 맺었으나 여수시의회에 사전 보고 후 맺은 협약은 없었다.

여수시장이 "민자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민간인 등과 맺어 오던 각종 협약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22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제2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송하진(사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 등에 관한 의결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이 공포돼 시행되면 여수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각종 협약 체결 시 의회에 사전 보고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수시의 일방적 협약 체결로 발생하던 의회와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조례안은 사후관리 조항도 신설해 협약 체결 이후 추진 사항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여수시의 각종 협약에 대한 책임 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한편 여수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6월 현재까지 민간과 29건의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3년간 여수시는 총 60건의 협약을 맺었으나 여수시의회에 사전 보고 후 맺은 협약은 없었다.



(여수=김진선 기자)

## 장성군 "모든 아이들은 소중합니다"

마을 이·동장 대상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장성군은 22일 "지역아동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마을 이·동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이·동장 교육을 통해 피해아동 조기 발견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양육 문화를 확산해 가는 것이 목표다.

교육에선 아동학대 유형, 신고·보호 절차부터 아동의 권리에 이르기까지 아동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뤄지며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교육 자료를 마쳤다.

김한중 군수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아픔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동 피해가 발생하면 장성군 아동학대 조사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직접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아동을 보호한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례관리 등을 통해 가정기능 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장성=김문태 기자

## 담양군, 대학생 인턴 53명 모집

23일까지 접수...내달 3일-8월4일 5주간 근무

담양군은 22일 "다음달 3일부터 8월4일까지 5주간 군에서 근무할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 5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턴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오는 23일까지 담양군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를 내려받아 투자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담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단, 대학생 인턴에 2회 이상 참여했

거나 지난해 겨울방학 인턴 참여자는 지원할 수 없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6시간이며 일당은 5만7천720원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방학동안 담양군과 읍·면사무소, 공공기관·단체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생활을 경험하고 학비에 보탬이 되는 대학생 인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